

□ EC委員會 報告書 □

EC精油産業의 諸問題

세계적으로 石油消費가 감퇴하는 상황하에서 過剩정유시설의 폐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EC에서는 국제경쟁력회복을 위한 체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최근 「精油産業의 諸問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要旨이다.

(編輯者註)

I. 머리말

81年 10月の EC理事會에서 채택된 EC 委員會報告 가운데에는 EC諸國의 石油精製 시설을 축소시켜 精油工場의 집중적인 가동을 추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體制에의 移行을 EC레벨에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自由競爭原則이 저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企業이 자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되, 政府의 역할은 이 移行이 效率의이면서 社會負擔을 극소화하는 方向으로 전개되기에 適當한 環境을 정비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委員會는 EC地域内の 精製実績 80%를 대표하는 企業으로부터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II. 概況 및 展望

81년에는 原油供給過剩과 消費減少, 製品價의 下落, 原油二重價格, 市場環境을 반영하지 않은 GSP가격, EC地域内の OPEC所有精油工場의 增産志向, 上限價格制를 설치하고 있다. EC會員國은 이러한 正세호전에 대한 대응이 뒤졌기 때문에 各企業은 막대한 收益惡化를 가져왔다.

82년은 消費가 더욱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年末이 되면서 서서히 景氣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在庫調整의 進展, OPEC減産에 의한 原油供給過剩의 해소로부터 收益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많은 기업은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精製 및 流通의 能力過剩과 石油製品間의 상대적 需要比率의 변화라는 構造問題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數年內에 過剩設備의 處理와 分解設備의 設置를 통하여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긴급과제이다. 費用의 삭감, 收益의 회복에 의한 效率改善이 海外의 石油精製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III. 過剩設備 狀況

85년의 石油消費量 4억5천만톤은 企業 혹은 關研機関이 예측한 複數數値의 평균점이고, 프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오차가 있다. EC會員國政府 石油消費予測値의 集計에는 年産 5억톤으로 되어 있다. 予測値 오차는 최근 數年 동안의 급격한 石油消費減少(79~82年 사이에 18.5% 감소)의 評價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EC에의 域內 최종제품 純輸入量은 현재 약 2천만톤으로 EC消費의 약 5%를 차지하고있다.

앞으로 數年內에 완성될 해외의 신규 輸出精油工場을 감안하면 石油製品의 국제 거래량은 85~86년에는年間 3천만톤 純增加할 것이다. 이 정도의 증대는 EC의 대폭적인 輸入增加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85년에는年間 1천만톤의 純增加가 상정된다.

消費想定을年間 4~5억톤으로 잡고 純輸入 3천만톤을 공제하면 原油處理量을 같은 3억7천만~4억7천만톤으로 想定할 수 있다. 이들수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EC委員會로서 最大値 4억7천만톤에 근거한 所要能力을 추정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4억7천만톤에서 所要能力 6억달러로 하면 稼動率은 80%로 된다).

IV. 蒸溜能力

大企業은 精油工場의 가동율好轉에 대하여 常庄蒸溜施設單位의 능력삭감,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精油工場의 완전폐쇄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기업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대개의 기업에서는 이미 EC地域內에서의 포괄적인 설비처리 목표를 결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몇몇 기업은 처리해야 할 地點에 대해서 選定을 끝냈다.

辺境地의 精油工場에 대해서는 대신할 供給者가 가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対応策을 강구하고 있다. 精油工場의 폐쇄에 의한 효과가 製品의 장거리수송비에 의해 상쇄되어 오히려 마이너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部分休止가 좋을 경우도 있다.

複數企業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精油工場및 콤비나트를 형성하고 있는 精油工場의 폐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 잠정적인 것이지만, 기업의 계획기준을 집계하면, 이들 部分休止, 完全閉鎖는 81년1월 현재의 능력으로 합계年間 1억5천만톤의 설비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반수에 대해서는 완료하였든가 실사가 확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가운데 3분의1은 地點이 확정되지 않았다.

82年初에 있어서 企業의 計劃은 다음과 같다.

▽常庄蒸溜施設 年産能力 8억1천만톤

▽81年中 처리완료 年産能力(폐쇄 1, 常庄蒸溜施設休止7) 2천6백만톤

▽處理計劃=확정(폐쇄 10, 상압증류시설 휴지 1) 年産能力 5천3백만톤, 예정(폐쇄 3, 상압증류시설 휴지7) 年産能力 4천5백만톤

▽검토중인 年産能力 2천6백만톤.

이 결과 所要年産能力은 6억6천만톤으로되어 추가처리필요 年産能力은 6천만톤으로 된다.

企業의 개별처리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제품교환과 委託의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도 있고, 輸送費를 증가시키지 않고 설비처리를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過剩設備狀況

(單位: 年産百万톤)

消 費	(73)	(80)	(81)*	(82)	(85)**
	603	519	477	460	450
純輸出(+)	+25	-18	-19	-20	-30
在庫變動	+ 8	+12	- 4	-10	-
原油處理量	636	513	454	430	420
蒸溜能力	787	810	784	754	600***
稼動率(%)	81	63	58	57	70
* 暫定値					
** 予測値의 中點					
*** 所要能力(1981年 9 月의 EC委員會報告)					

V. 社会問題

대규모 精油工場에 있어서 部分休止가 一巡하여 이제 精油工場의 완전폐쇄를 행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비처리에 따르는 雇用問題가 대두되었다. 현재 폐쇄가 확정된 14개 精油工場의 종업원수는 약 200~1,700명이고 평균하면 年産能力 5백만톤당 5백명~6백만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定年退職, 자연감소에 의해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國家혹은 自活體에 의한 雇用創出計劃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C의 「地域開發基金」에 의한 성공은 이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럽社 基金援助」도 조건이 합치하여 當該國의 補填이 있으면 이용가능하다. 後

者는 해고된 精油工場 노동자의 再訓練 또는 이러한 노동자를 고용하고자하는 中小企業에의 雇用補助金の 형태를 띠고 있다.

VI. 結 論

81年 10月の 전망에 비해 더욱 消費減少가 예상되므로, 年間 2억톤의 설비처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81年 1月 현재 年間能力은 8억 1천만톤으로 処理率은 24.7%).

短期的의見地에서 불배 설비처리의 실시가 石油精製業界의 収益에 악영향을 미치는 얼마간의 중요한 요소는 있지만 石油精製能力의 과잉은 이 數年間에 있어서 資本回收惡化의 최대원인이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원인이다.

81年中에 部分休止, 완전폐쇄 및 81年 이래 計劃은 總計 약 年産 1억5천만톤이고, EC委員會가 적절하게 판단한 목표는 年産 2억톤이다.

동시에 이 年産 1억5천만톤 가운데 3분의1은 未定이고, 業界에 있어서 합리화노력의 계속및 政府에 의한 촉진이 필요하다.

雇用問題에의 직접 혹은 간접 영향이 완전폐쇄의 실시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된 종업원의 再就職은 실업률이 높고, 勞組가 강한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製品需要構成의 變化에 대응한 방법으로 計劃이 완전히 실시되면 80年代中의 능력은 적절한 것으로 되고 國際的인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海外石油産業動向 □

日本 石油業界 第3次 價格引上

日本 石油会社들은 換差損에 따른 적자누증을 막기 위해 石油製品價格을 또 다시 인상했다.

日本 최대의 石油会社인 日本石油는 지난 11월 16日 국내 石油製品價格을 인상했는데 이는 올들어 세번째 價格引上이다.

日本 石油業界는 올들어 4月과 8月の 2회에 걸쳐 換率上昇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1kl당 합계 약 1만圓의 價格引上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換率上昇이 계속되어 최근에는 8月引上의 기준이 된 換率(1달러=255엔)보다 20圓 이상 換率이 올랐다.

石油業界는 費用의 80% 이상을 原油代金이 차지하고 있으며 換率이 1달러당 1圓 상승하

면 業界全体로서는 年間 4백 수십억圓의 換差損이 발생하여 費用上昇의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石油業界에서는 이미「11月中에 3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價格決定者라 할 수 있는 日石은「좀 더 換率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價格引上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日石이 3차 인상을 단행한 것은 첫째, 82年度 中間決算에서 대폭적인 換差損이 발생하여 적자로 되었고 둘째, 82年度 下半期에도 1달러=275엔 前後의 高換率이 정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